

'임실군 저지종 젖소 보급' 올해 목표 완료

농진청, 생축 6마리·수정란 30개 공급... 고급 유제품 생산 기반 강화

농촌진흥청은 올해 계획한 임실군 저지종 젖소 보급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립축산과학원과 임실군이 체결한 '임실군 저지종 젖소 사육기반 구축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협약에 따라 매년 저지종 젖소의 생축과 수정란을 단계적으로 공급해 지역의 사육 기반 확충과 유가공 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5월과 9월에 저지종 생축 5마리와 성감별 수정란 10개를 공급한 데 이어, 11월에는 성감별 체내 수정란 20개를 추가로 보급하며 계획된 물량을 모두 완료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2025 한국홀스타인 품평회'에서 육성·미경산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저지종 암소 1두를 임실군에 보급해 우수한 품질의 번식 기반을 더욱 공고

히 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첫 보급된 저지종 암소 1마리와 수정란 30개를 포함해, 올해까지 누적 보급된 규모는 생축 7마리, 성감별 수정란 60개에 달한다. 임실군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8월부터 '생체 내 난자흡입술(OPU, Ovarum Pick-Up)'을 활용한 체외수정란 생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생산된

수정란은 선발된 농가에 순차적으로 이식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임실체즈' 등 고급 유제품 생산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김상범 과장은 "이번 보급 사업을 통해 임실군의 저지종 젖소 사육 기반이 조속히 확립되고, 고품질 우유 및 유제품 산업이 빠르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실군과 협력해 수정란 보급, 사양·번식 기술 이전,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순창 농생명식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메가쇼2025 시즌2'에 참가해 전국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신규 거래처를 다수 확보했다

순창 농생명식품 소비자 입맛 사로잡다

전북테크노파크, 메가쇼2025 시즌2 참가... 판로 확대 성과

전북테크노파크는 13일, 시군구 연구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순창 농생명식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참여기업들이 국내 최대 생활소비재 박람회인 '메가쇼2025 시즌2'에 참가해 전국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신규 거래처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순창군 식품기업의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북테크노파크는 발효·생물산업진흥원과 협력해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순창의 대표 식

품기업인 △하나리 △이조전통식품 △지티지푸드 △비틀도가 △명진 중인 순창 농생명식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참여기업들이 국내 최대 생활소비재 박람회인 '메가쇼2025 시즌2'에 참가해 전국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신규 거래처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순창군 식품기업의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북테크노파크는 발효·생물산업진흥원과 협력해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순창의 대표 식



전기안전공사... 삼성SDS 상암데이터센터 특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무정전전원장치(UPS) 설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발 빠른 점검에 나섰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삼성SDS 상암데이터센터에서 UPS 설비를 대상으로 특별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UPS는 정전 시에도 일정 시간 전력을 공급해 전기 설비나 데이터 손상을 방지하는 핵심 설비다. 그러나 최근 UPS 배터리 화재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관리원에서는 UPS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주요 업무시스템이 일시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점검에서 전기안전공사는 상암데이터센터의 UPS 설비 운영 상태와 안전관리 실태, 비상 대응 매뉴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공사는 점검을 통해 도출된 취약 요소를 정밀 분석하고, 관련 사업장이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화영 사장은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현행 기준 대비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취약점을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에 반영해 국가 전산 자원의 화재 등 재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앞으로도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전력설비 시설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 안전관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지혜와 역량을 모아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 마련하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2025 대표회원 워크숍' 성황리에 개최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지난 12일 세종시 일원에서 대표회원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대표회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대표회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회원 간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에서는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친선 프로그램과 함께

'2026 건설 경기전망과 전북 인프라 현황'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됐다. 이날 강연을 맡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지혜 연구위원은 △건설산업 위기의 진단과 원인 △2026년 국내 건설시장 전망 △전북 지역의 건설경기 및 인프라 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며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소재철 회장은 2026년도 전북도의 건설분야 예산편성 방향과 새남금 사업 관련 주요 예산안을 직접 설명해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소 회장은 "우리 건설업계는 물가상승, 공사 물량 감소,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협회를 중심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새로운 성장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표회원들이 안전 확보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대응력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적정 공사비 보장 등 업계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주체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은 협회와 회원 간 소통의 장이자,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HD하이드로젠·컨비온, SOFC 공동협력 협약 체결

핀란드 헬싱키서 협약... 안전기준 수립 및 국내 도입 기반 마련

핀란드 헬싱키서 협약... 안전기준 수립 및 국내 도입 기반 마련.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1일(현지 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HD하이드로젠, 컨비온(Convia·CEO 에르코 폰텔)과 함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차세대 친환경 발전원으로 주목받는 SOFC의 안전한 국내 보급과 기술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SOFC는 기존 화석연료 발전 대비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수소에너지 핵심 기술로, 고효율·저탄소 발전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SOFC 신기술의 국내 정착 지원 △발전설비 검사 기술 및 안전기준 선진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력계통 규제 개선 연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1년부터 100KW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 제

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온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SOFC 전용 안전기준 수립과 검사체계 구축을 주도할 예정이다. HD현대의 연료전지 및 수소사업 전문 자회사인 HD하이드로젠은 SOFC의 국내 생산과 사업화를 추진하며, 지난해 HD하이드로젠에 인수된 핀란드 기업 컨비온은 기술 지원 및 현지 교육을 통해 SOFC의 안정적 도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세 기관은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협력 회의를 열어 SOFC 발전 시스템 국내 실증사업 등 단계적 실행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비대면 금융 '원스톱 서비스' 구축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13일 신용보증기금과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 침체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생산적 금융 실천을 위한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이 보증 상담부터 대출 신청, 보증 승인, 자금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 대표가 은행과 보증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북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 '썬뱅크'를 통해 모든 금융 절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비대면 혁신보증서 발급 시스템 '이지원(e-지원)' 서비스와 전북은행의 디지털 플랫폼을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보증·대출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전북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간 연대를 통해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영을 이어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은행 방문 없이도 비대면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